

## 커플치료의 연구동향 분석 - 국내 상담 관련 학술지를 중심으로 -

최 빛 내                      최 우 정                      최 연 실\*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2016년까지 국내 상담 관련 학술지에 게재된 커플치료와 관련한 논문을 고찰하여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검색사이트인 riss.kr에서 KCI 등재 연구 총 186편을 선정하여 해당 논문을 연도별 발표추세, 학문영역, 연구주제, 치료이론 및 기법, 연구방법에 따라 분류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커플치료 연구는 1995년을 기점으로 매년 20%이상씩 증가하여 양적으로 성장해 온 경향을 보였다. 둘째, 커플치료 연구는 가족치료, 심리학, 상담학 분야에서 주로 발표되었다. 셋째, 커플치료의 연구주제는 부부의 문제 상황, 의학적 특성, 정신적 요인, 가족주기 관련요인, 특수 가족문제로 대별되었다. 넷째, 커플치료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한 치료이론 및 기법은 통합적 접근, 사티어의 경험적 접근, 보웬의 다세대적 접근, 이마고치료, 미술치료 등이었다. 다섯째, 커플치료의 연구방법은 개입연구(성과연구, 사례연구)와 비개입 연구(경험연구, 문헌연구)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국내에서의 커플치료 연구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커플치료에서의 효과적인 임상개입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정보 제공과 기초자료 축적의 의의를 지니고 있다.

주제어 : 커플치료, 연구동향, 국내 상담관련 학술지, 연구주제, 치료이론 및 기법, 연구방법

---

\* 교신저자 : 최연실 /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 (03016)서울시 종로구 홍지문2길 20  
Tel : 02-2287-5317 / E-mail : yschoi@smu.ac.kr

## I. 서 론

국내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커플치료(couple therapy)’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해 온 용어는 ‘부부상담(marital counseling)’(최규련, 2015), ‘부부치료(marital therapy)’(Brown, & Brown, 2002, 김영희, 최규련, 홍숙자 역, 2005; Long & Young, 2007, 이정연 역, 2009) 등이었다. 커플치료는 결혼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친밀하고도 (intimate) 결속력 있는(committed)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자관계(dyad)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말하는 것이다(Gurman, 2015). 원래는 결혼을 전제하지 않은 다양한 이자 관계를 다루려는 미국사회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한국사회에서도 이러한 친밀한 관계에서의 변화가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한 그 양상도 다양하므로, 한국의 상담 및 심리치료 학계에서도 ‘부부’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커플(couple)’로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만 ‘커플’이라는 용어가 아직 적절한 한국어로 번역되지 않고 있고 학계에서도 정착된 용어가 아직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커플치료(couple therapy)’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커플치료는 결혼을 전제 하지 않은 상태의 커플, 결혼 전의 연애 관계인 커플, 동성애 커플을 포함하여 부부 상태에 있는 모든 특별한 이자관계에 있는 대상에 대한 치료로서 결혼을 한 상태인 커플에게 행해지는 부부치료와 차이가 있다(Long & Young, 2007, 이정연 역, 2009). 따라서, 본 연구는 부부관계를 포함한 모든 친밀한 관계에 있는 커플에 대해 치료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국내의 기존 선행 연구들

의 흐름을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그 연구들의 동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커플치료에 대한 연구는 커플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핵심적인 방법을 찾아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개인의 어려움이 관계의 맥락에서 발생한다는 관점에서의 가족치료(정문자, 정혜정, 이선혜, 전영주, 2018)에 기반하고 있다. 또한 커플치료는 관계의 맥락과 패턴을 파악하여 행복과 안정을 추구하고자 한다(Gurman, 2015)는 점에서 개인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의 변화를 추구하는 개인상담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친밀한 커플관계는 자발적으로 맺어지면서, 안정과 성장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서로 다른 가치관을 조율하고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간에 갈등을 초래하는 모든 상황은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으며,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가져온다. 커플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이러한 일들은 개인의 정신건강을 위협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측면 때문에 저명한 심리학자들은 성인초기의 커플관계가 한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Erikson(1959)은 성인 초기에 개인은 자기 자신을 타인과 융합시키려 하며, 이를 통해 친밀감을 발달시키므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감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또한 Sullivan(1953)은 다양한 대인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특정한 한 사람과 낭만적인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Levinson(1978)은 인생을 일과 사랑을 중심으로 구조화하면서, 한 개인의 발달에서 성인 전기에는 직업을 선택함과 동시에 이성과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며, 이 때 이러한 애정의 관계는 한

개인을 잘 기능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스트레스도 가져올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자신의 관계 패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기에 개인의 심리적 요인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김중술, 1997).

특정한 친밀한 관계에 들어간 커플은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과 갈등을 겪게 되고 이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여 부정적인 결과에 이르기도 한다(신수빈, 2012). 한 예를 들자면, 2016년에 데이트폭력으로 입건된 사람은 8,367명을 기록해서 2015년보다 8.8% 늘었다는 경찰청(2016)의 범죄통계자료가 있다. 커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중에서 폭력행위는 피해자가 도움을 청하지 않는 한 알려지기 어려우며, 사태가 심각해지고 나서야 전문가가 개입하게 된다. 이 외에도 경찰범죄통계(2016)의 자료에서 확인된 커플들 간에 일어나는 범죄도 상당한 비율에 이른다. 애인과 가족에서 일어난 범죄의 총 건수는 2016년 한 해 동안 50,793건으로 전체 범죄의 2.8%에 해당하며, 전년 대비 16.3% 상승하였다. 이런 자료들을 통하여 볼 때, 평소에 주변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정평이 나있는 사람도 가족이나 애인에게는 다른 얼굴로 돌변하여 끔찍한 범죄를 일으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국사회의 커플관계를 살펴볼 때, 주목해야 할 점은 그동안 다문화가족이 증가해 왔다는 점이다. 다문화가족은 부부 사이에 이질적인 문화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왔으므로 한국사회의 커플치료를 논할 때 주목해야 할 가족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가족에서의 부부문제와 부부갈등은 당사자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세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최연실, 2011).

이는 통계수치로도 살펴볼 수 있는데, 2016년에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 자녀수는 9만 9천명으로 전년보다 20% 증가하였으며, 이들 청소년의 46.2%가 가족 갈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7). 이외에도,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족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이혼율의 증가, 한부모가족이나 재혼가족, 조손가족의 증가와 결혼 및 출산 비율의 감소도 커플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들이고, 커플 문제가 핵심에 있는 사회현상들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치료적 개입으로서의 커플치료에 대한 필요성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절실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현실적 요구에 부응하고 적합한 커플치료를 모색하기 위한 기초적 작업으로서 먼저 그동안 이루어진 커플치료의 역사를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커플치료의 현황 파악이나 연구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데, 본 연구는 이를 커플치료와 관련한 연구 동향의 분석을 통해 접근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국내 상담관련 학술지에 게재된 커플치료 관련 논문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현재까지 발표된 커플치료 관련 논문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보면, 그동안에 발표된 연구동향 분석과 관련된 논문들은 특별히 커플치료에만 국한시켜 다루었다기보다는 가족치료 전반을 포섭하면서 부부치료도 함께 포함시키는 것이 대부분이었다(김선남, 송준수, 1986; 박정희, 최연실, 도은숙, 서신화, 안연주, 2007). 이 연구들 중에는 부부치료 프로그램이나 이론적 접근을 살펴보면서 최신 연구동향

을 짚어본 연구(김남연, 양난미, 2012; 정교영, 신희천, 2007)도 있고, 학회지에 실린 논문들을 대상으로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동향을 분석한 연구(서진환, 2008)도 있다.

이러한 부부치료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본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부족하며 비교연구나 반복연구가 필요하다는 것과 연구자의 수는 늘어나고 있으나 연구의 양은 다소 부족하고 모델과 기법을 소개하는 연구는 거의 부재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연구동향을 본격적으로 분석해보는 연구들은 대부분 10여 년 전에 발표되었으며, 현재 시점에서는 ‘커플치료’로의 전환이 모색되고 그 사회적 수요도 점증하므로, 다시금 커플치료의 연구동향이 파악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두 편의 논문(김남연, 양난미, 2012; 정교영, 신희천, 2007) 발표 이후 현재까지 커플치료와 관련하여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져 왔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가장 먼저 커플치료가 양적으로 어떠한 성장을 이루어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수치에서의 성장은 결국 커플치료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커플치료에 대한 개괄적인 그림을 제시해줄 것이다.

다음으로는 커플치료를 어떠한 학문 영역에서 주로 접근하고 있는지를 어떤 주제들이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커플치료는 가족치료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학문에서 접근하는 학제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Gurman, 2015). 종래에 부부치료는 가족치료와 통합해 ‘부부·가족치료(marital and family therapy)’로 칭해져 왔지만, 미국에서 최근 들어서는 ‘커플치료’로 독립하는 경향이 있고,

또 다른 학문 영역과 결합해 확장해 나아가는 경향도 있으므로(Gurman, 2015), 국내에서는 어떠한 학문 영역에서 이러한 커플치료에 관심을 갖고 접근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발표된 커플치료 관련 논문들의 연구주제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주제는 국내 커플치료의 관심이 집약되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때, 이러한 연구주제를 살펴보는 작업은 국내 커플치료의 맥을 잡아가는 데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국내 커플치료 연구에서 다루어진 치료이론과 기법에도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치료이론과 기법은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의 체계성과 전문성을 담보해내는 핵심적인 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커플치료의 최근 국내 연구동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는 바로 이러한 치료이론과 기법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한국의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 주목 받고 활성화되고 있는 커플치료의 이론적 모델들이나 치료기법들을 추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커플치료 연구에서 주로 쓰고 있는 연구방법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커플치료는 주로 치료 이론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연구, 치료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 사례연구를 통한 치료의 효과와 부부의 관계 패턴 변화를 파악하는 연구, 부부의 사정을 위한 평가 도구를 활용하는 연구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 발표된 커플치료 연구방법의 검토는 연구와 실천의 연계를 위해 중요한 작업이 될 수 있다. 즉, 국내에서 커플치료의 연구 결과가 임상 현장에 반영되고, 또 임상 현

장에서 형성된 문제의식은 다시 연구주제를 던지게 됨으로써 연구와 임상이 함께 결합되는 것은 실천적 학문으로서 커플치료가 발전하는 데 있어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시도하는 커플치료 논문의 연구방법 검토는 바로 이러한 연구-임상 연계를 위한 기본토대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커플치료 연구의 연도별 발표 추세는 어떠한가?

둘째, 커플치료 연구는 어떠한 학문영역에서 다루고 있는가?

셋째, 커플치료 연구에서 나타나는 연구주제는 무엇인가?

넷째, 커플치료 연구에서 나타나는 치료이론과 기법은 무엇인가?

다섯째, 커플치료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구방법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문제들의 분석 작업을 통해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커플치료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정리함으로써 한국의 부부문제 개입에 효과적인 이론적 관점을 정립하고 실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해 나아가는 데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II. 선행연구 고찰

커플치료 연구동향 파악과 관련해 발표된 기존의 선행연구들에 대한 고찰은 본 연구의 연구문제 중 연구주제, 치료이론과 기법,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양적 추세와 학문 영역의 분석은 커플치료 연구동향을 분석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다루지 않은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이 세 연구문제에 국한시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 1. 연구주제 관련 커플치료 선행연구

커플치료와 관련해 연구주제를 다룬 논문들은 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에 발표된 논문들이며 가족치료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부부치료나 커플치료는 간접적인 연관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이 작업을 시도한 것은 최연실(2002)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가족치료의 질적 연구방법론의 활용을 논의한 것으로서 가족치료 영역을 연구주제별로 유목화하여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치료과정, 부부상담·치료, 부부갈등, 청소년자녀 문제, 알코올중독, 고부갈등, 주의력결핍/과다 행동장애, 금연, 불안장애, 아동도벽, 강박증, 우울증, 이혼, 섭식장애, 아내구타 등으로 15가지 주제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김은영(2007)은 특별히 해결중심치료를 다룬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선별하여 그 연구들의 주제를 가정폭력, 청소년문제, 치료의 효과성, 금연, 부부갈등, 이혼가족, 주의산만 아동, 가족치료 과정에서 내담자 경험, 언어게임 개념의 적용, 사회구성주의 가족치료의 적용 등 총 10개로 나누어 분석한 바 있다.

더불어, 박정희 등(2007)의 연구에서는 국내외 주요 학술지에서 나타난 가족치료 연구의 주제별 경향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분류체계를 9개 영역으로 나누어 가족치료 모델/이론, 문제 유형별 사례연구, 연구방법, 가족치료 실제, 척도연구, 가족치료 교육/훈련, 가족관계/과정/다양한 가족, 비교가족문화연구, 기타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한편, 서진환(2008, 2010)은 성과분석을 위해 기존에 발표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면서 국내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 연구주제를 다룬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주제를 유목화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이 가족문제유형이나 치료효과성, 한국적 적용, 치료과정이나 윤리적 문제 치료자훈련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주제'라는 범주의 일관성이 없으며, 연구자마다 주제의 의미가 다르고 전반적으로 주제라는 의미가 광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들이 지적되었다.

## 2. 치료이론과 기법 관련 커플치료 선행연구

커플치료와 관련해 치료이론과 기법을 중심으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연구에는 세 편의 논문이 있다. 먼저 가장 최초의 부부치료 이론과 관련된 연구는 김수현(1982, 1985)에 의해 이루어졌다. 임상심리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이 연구는 한국의 부부치료 초기에 도입한 이론들을 중심으로 비교 고찰되었다.

정교영과 신희찬(2007)은 '부부치료의 주요 이론적 접근과 최근 연구동향'이라는 논문에서 2007년까지의 국내 연구동향을 종합하여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행동치료모델, 인지행동치료모델, 정신역동치료모델 및 가족체계치료모델 등 총 4가지 이론을 중심으로 최근의 연구동향을 개관하였고, 이론에 따른 원인과 평가, 치료자의 역할과 목표, 치료기법과 국내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연구자들은 아직 부부치료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이 부족하며, 다양한 이론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부부 프로그램으로 개발되는 것이 절실하다고 논의하였다.

한편, 근래에 박우철(2016)은 '부부상담 임상

연구에서 모델중심 성과연구와 공통요인 연구에 대한 개관'이라는 논문에서 부부상담의 이론들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는 이 연구에서 모델중심 성과연구와 여러 이론들을 아우르는 공통요인 연구를 구분하여 국외 임상에서의 부부상담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성과를 입증한 인지행동부부상담, 정서중심부부상담 등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졌다. 또한 연구자는 부부상담에서의 공통요인 패러다임에 대한 소개 외에도 상담자 특성, 내담자 특성,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 치료 경과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임상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증거기반실천(evidence-based practice)이 필요하고, 사회차원에서의 부부상담에 대한 인식 재고가 필수적이라고 논하고 있다.

## 3. 연구방법 관련 커플치료 선행연구

연구방법과 관련해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커플치료 관련 논문도 몇 편 발표된 바 있다. 부부/가족치료 분야에서 연구방법의 이슈를 제기한 대표적인 논문들은 대략 3편 정도이다. 먼저 최연실(2002)은 부부/가족치료의 연구들을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김은영(2007)은 연구목적에 따라 성과연구와 과정연구로 분류하여 기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려고 하였다.

또한 신혜중(2008)은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상담학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한국가족관계학회지」, 「한국가족복지학」, 「한국가족치료학회지」, 「한국사회복지학」 등 6개 학술지를 대상으로 가족/부부상담, 가족/부부치료, 가족 및 부부 교육 등 가족치료와 관련된 프로그램 효과성과 관련한 논문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분석 대상이 된 총 2272편의 논문 중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한 논문은 11편 (0.48%)으로 미약한 게재 수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효과성 연구를 다룬 논문들이 효과성 검증을 위해 실험-통제연구, 의사실험연구, 단일사례 연구 방법 등을 사용하였으나, 표집방법, 사용된 척도, 자료 분석방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효과성을 입증하기 어려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성 검증 연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회차원에서의 지원, 교육현장과 실천현장에서의 유기적 연계, 연구방법에 대한 재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논의하였다.

한편 서진환(2008)은 연구논문이 지닌 다양성이 유목화과정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단계별 범주화 작업을 시도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모든 논문에 대해 ‘가족치료를 수행하고 그 내용이나 결과를 분석한 임상적 치료 논문인가?’의 질문에 따라 두 범주로 나누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치료논문과 비치료논문의 고유성을 고려하여 분류하였다. 치료논문은 성과연구, 과정연구로 분류하였고, 비치료논문은 문헌연구와 경험연구로 나뉘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경험연구는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기준을 통합하여 유목화하고 문헌연구는 연구목적별로 유목화하는 방식을 따랐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체계성을 감안하여 서진환(2008)이 제시한 이러한 방식을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분석틀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 4. 연구주제, 이론과 기법, 연구방법을 종합적으로 다룬 커플치료 선행연구

본 연구가 관심을 지니고 있는 연구주제, 이

론과 기법, 연구방법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김남연과 양난미(2012)의 논문이 있다. 연구자들은 부부 집단상담과 관련한 연구동향을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발표 논문을 중심으로 34편의 논문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Satir이론이 가장 많이 연구되었고, 프로그램 회기 주제는 의사소통, 갈등대처와 해결을 많이 다룬 것으로 보고하였다. 측정도구는 의사소통 측정도구가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그 중에서도 Bienvenu의 부부의사소통검사가 가장 많았다. 효과 검증방법으로는 질적 분석이 가장 많았고, 참여대상은 결혼한 부부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검토한 논문들이 검색 논문 수가 부족하고, 효과 검증 연구에서 어떤 영역이 갈등해소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연구 평정자들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한계점으로 지적하였고 이를 보완하는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1980년부터 2016년까지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들로서, 본 연구에서는 저서와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은 제외하였다. 논문을 수집하기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통합검색을 통해서 ‘커플치료’, ‘부부치료’를 검색하여 추려진 각각의 국내학술지 논문 651편에서 제목을 통해 커플치료와 전혀 상관이 없는 논문들을 제외하고 상담 영역을 표방하고 있는 KCI등재학술지 위주로 186편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리키는 커플치료의 범주는 부부를 포함한 다양한 상황에 있는 모든 커플들로서 본 연구의 대상에는 이러한 커플들에 대한 치료적 접근을 시도한 모든 논문이 포함된다.

## 2. 연구의 방법과 분석틀

본 연구는 기존의 문헌들을 참고하여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괄적 파악을 제공하기 위해서 연도와 학문영역별로 분류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첫 번째, 두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되는 것이다.

또한 연구 동향의 구체적 파악을 위해서 연구주제, 치료이론과 기법, 연구방법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되는 것이다. 연구주제와 관련한 분석방법은 김계원, 정종진, 권희영, 이윤주, 김춘경(2011)의 연구를 참고한 것이다. 연구주제를 살펴보기 위해 모든 연구대상을 먼저 상세하게 파악하고, 대상의 특성을 분류한 후에 관련 주제별로 묶는 3단계의 과정(1단계: 연구대상별 분석, 2단계: 연구대상의 특성별분류, 3단계: 분류된 대상을 유사한 주제로 묶기)을 거쳐 ‘부부의 문제 상황’, ‘의학적 특성’, ‘정신적 요인’, ‘가족주기요인’, ‘특수 가족문제’로 나누었다.

치료이론과 기법에 따른 분류도 시도하였는데, 이는 정교영과 신희천(2007)의 연구를 참고로 한 것이다. 치료이론에 따른 분류는 커플치료의 10대 이론을 중심으로 ‘정신분석적’, ‘경험적’, ‘인지행동적’, ‘전략적’, ‘다세대적’, ‘구조적’, ‘정서중심적’, ‘해결중심적’, ‘내러티브적’, ‘통합적’ 치료이론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연구방법에 따른 분류는 서진환(2008)의 연구 분석틀을 참고하여, 개입연구와 비개입연구로 나누었고 이를 다시 성과연구, 사례연구, 경험연구, 문헌연구로 분류하였다. 분석을 위해서는 각 분류항목에 따라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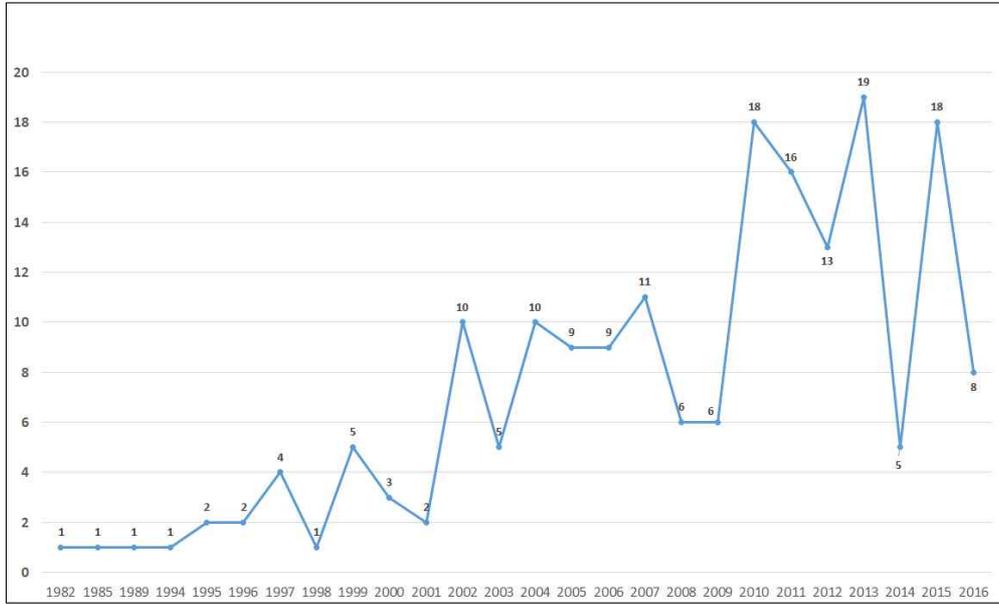
### 1. 커플치료 연구의 연도별 발표 추세

그림 1의 그래프를 통해 보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듯이, 연도별 논문 수는 1982년 이래 2016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고, 특히 2000년 이후에는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인다. 이는 2000년 이후 커플치료 연구가 양적으로 팽창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 학술지에서 최초로 김수현(1982)의 ‘부부관계 치료이론의 비교고찰’에 대한 연구가 「한국임상심리학회지」를 통해 게재되었다. 이후 같은 연구자가 1985년에 ‘부부갈등에 대한 치료적 개입’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또한 그 이후 김종옥과 정수경(1994)의 고부갈등의 부부치료 사례 연구가 「한국가족치료학회지」에 소개되었다.

그림 1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중간에 연구가 미비한 해가 있지만 전체적 변화추이로 볼 때는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수치로 분석해보면, 1995년 이래로 매년 20% 이상씩 양적 성장을 보여 온 것을 알 수 있다.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982년부터 1994년까지 한 편씩 논문이 게재되었고, IMF가 있었던 1997년에 4편으로 늘어났다가 다시 1998년에 1편으로 줄어들고 1999년에 5편이



[그림 1] 커플치료 연구의 연도별 발표 추세

투고된다. 2000년과 2001년에 점진적으로 줄다가 2002년 이혼율이 증가하는 시점에 10편의 커플치료 논문이 수록된다. 2003년에는 5편으로 줄고 2004년에 10편으로 증가한 후에 정체를 맞이하다가 2008년과 2009년에 연구 실적이 미비해진다. 그리고 2010년 18편의 논문이 게재 되었다가 점차 줄어든 후에 2013년에 19편으로 다시 많아진다. 또한 2014년에는 5편으로 확 줄어들게 된 후에 다시 2015년에는 18편이 되었다. 그 후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가 2016년 9월까지로 8편의 논문이 투고되어 2년 단위로 묶어 그래프를 그렸을 때에는 확실히 상승곡선을 보인다. 하지만 당해에 추진된 연구가 그 해에 게재되는 것이 아니기에 연구수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였다고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연도에 따른 연구 수는 가족치료에 대한 관심과 부부관계를 둘러싼 사회적 사건들, 이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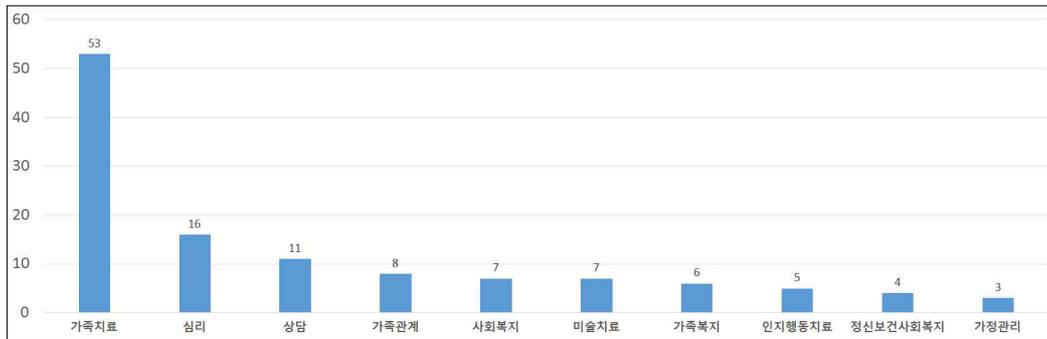
율의 증가, 결혼과 출산의 저하 등의 사회적 현상에 의한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 2. 커플치료 연구의 학문영역별 분석

학문영역별로 커플치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학문을 대표하는 학회의 게재 논문들을 확인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접근하였기 때문에 편의상 학회 명칭이 학문분야를 나타내는 것으로 제시하였지만, 이는 정확한 학문 분야를 표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미리 밝히고자 한다.

가장 많은 연구수를 나타내고 있는 학문 영역은 가족치료(「한국가족치료학회」)로 53편(28.5%)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심리학(「한국심



[그림 2] 커플치료 연구의 학문영역별 분석

리학회) 16편(8.6%), 이어서 상담학(「한국상담학회」) 11편(5.9%), 가족관계학(「한국가족관계학회」) 8편(4.3%), 사회복지학(「한국사회복지학회」) 7편(3.8%), 미술치료학(「한국미술치료학회」) 7편(3.8%)이었다. 또한, 가족복지학(「한국가족복지학회」) 6편(3.2%), 인지행동치료(「인지행동치료학회」) 5편(2.7%), 정신보건사회복지학(「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4편(2.2%), 가정관리학(「한국가정관리학회」) 3편(1.6%)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학회별로 제시된 학문 분야를 정리해보면, 가족치료나 상담학은 학제적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인지행동치료는 심리치료 분야에 속하므로 심리학에 통합해서 살펴볼 수 있으며, 사회복지와 정신보건사회복지는 한 분야로 볼 수 있다. 가족관계, 가족복지, 가정관리는 크게 보면 가족학 분야로 통합해서 볼 수 있고, 미술치료는 독립적인 하나의 분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감안해서 다시 정리해보면, 가족치료 53편, 심리학 21편, 가족학 17편, 상담학 11편, 사회복지학 11편, 미술치료 7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커플치료를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분야는 역시 가족치료이며, 그 외 심리학과 가족학이 커플치

료에 관심을 지니고 있는 학문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문별 커플치료 관련 내용을 치료이론이나 연구주제 등과 연관 지어 살펴보면, 조금씩 다른 특징들이 나타난다. 가족치료 분야에서 연구된 내용을 살펴보면, 가족치료 이론 중에서도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치료가 12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는 인지행동, 해결중심, Bowen, 가트만 등의 치료이론이 활용되었다. 연구대상은 이혼, 폭력을 포함하여 다문화가정, 중년부부, 신혼부부 등이었다. 심리학 분야에서는 자존감, 우울증, 커플의 욕구, 척도개발, 결혼만족도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족학에서는 부부갈등, 가정폭력과 관련한 커플치료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인지행동모델에 기초한 연구들도 있었다. 상담학에서는 이마고, 사티어, 현실치료 등이 진행되었고, 대학생 커플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사회복지학분야에서는 알코올중독 커플, 쉼터 거주 대상, 암환자, 다문화에 대한 접근이 있었고, 미술치료학에서는 커플사례에 미술치료를 적용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림 2에서 제시되지 않은 나머지 논문들은

대학 내의 상담연구소나 생활과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것으로, 전반적으로 커플치료는 많은 학문 영역과 공유되고 있다.

### 3. 커플치료 연구의 연구주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발표된 커플치료 선행연구들의 연구주제를 3단계에 걸쳐 분석하는 작업을 거쳤다. 먼저, 연구주제를 분류하기 위해 1단계에서는 모든 연구에서 사용된 대상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2단계에서는 대상 자체에 대한 관심과 대상의 문제 특성에 따라 구분되는 것을 확인하여 연구주제를 두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3단계에서는 문제 특성에 주목하여 유목화 하는 과정을 거쳐 ‘부부의 문제 상황’, ‘의학적 특성’, ‘정신적 요인’, ‘가족주기 요인’, ‘특수 가족문제’ 등 총 5개의 연구주제를 추출하였다. 3단계에서의 연구주제는 다시 하부주제로 세분되어 분석되었다 (표 1 참조).

본 연구에서는 자료로 수집한 186개의 논문 중에서 문헌고찰이나 현황 연구를 제외한 151개의 연구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연구주제를

분석하는 작업은 그 중에서 대상의 특성과 상관없이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던 18개의 연구를 제외한 133편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졌다.

표 1을 통해 각각의 범주에 해당하는 연구 주제와 논문의 편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부의 문제 상황’에 해당하는 연구 주제로 이혼(22), 가정폭력(15), 외도(5), 고부갈등(3)을 다룬 논문들이 있었다. 둘째, ‘의학적 특성’을 가진 연구 주제로 장애문제, 암환자, 척추손상, 불임을 다룬 논문들이 1편씩 있었으며, 셋째, ‘정신적 요인’에 해당하는 연구 주제로 우울과 관련한 요인(9편), 알코올중독(4), 편집증(3), 불안장애(3), 부정망상, 포르노중독, 화병을 살펴 본 연구들이 있었다. 넷째, ‘가족주기’에 따른 연구 주제로 청년기(13), 신혼기(12), 중년기(18), 노년기(3)와 관련된 연구들이 있었다. 그리고 다섯째로는 ‘특수 가족문제’를 연구 주제로 하여 다문화가족(11), 재미교포가족(2), 워터거주자(2), 기러기가족(1), 맞벌이부부(1) 연구가 있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상을 특정하게 한정하여 진행한 연구는 총 133편으로 본 연구의 전체 분석대상이 되었던 186편에 대한

<표 1> 커플치료 연구의 연구주제

연구 주제	세부항목
I. 부부의 문제 상황-33.8%	이혼(22), 가정폭력(15), 외도(5), 고부갈등(3)
II. 의학적 특성-3%	장애문제(1), 암환자 배우자(1), 척추손상 남편(1), 불임여성(1)
III. 정신적 요인-15.7%	우울관련(10), 알코올중독(4), 편집증(3), 불안장애(2), 부정망상(1), 포르노중독(1)
IV. 가족주기-34.6%	청년기(13), 신혼기(12), 중년기(18), 노년기(3)
V. 특수 가족문제-12.9%	다문화가족(11), 재미교포가족(2), 기러기가족(1), 워터 거주자(2), 맞벌이부부(1)

비율에서 71.5%에 해당한다. 연구주제별로 분류된 논문 편수를 살펴보면, 의학적 특성이나 정신적 요인에 대한 논문들은 상대적으로 그 수치가 낮다. 따라서 커플치료의 연구주체가 관계 중심이나 발달적 이슈 등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의학적,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부가 아닌 커플에 해당하는 대상은 청년기 결혼이전 커플로 한정되며 동성애나 이혼 이후 재혼을 앞둔 커플 등 다양한 커플에 대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러한 대상을 포괄하여 더불어 연구주체의 확대가 시도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 4. 커플치료 연구에서의 치료이론과 기법

본 연구에서는 커플치료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치료이론 및 기법을 분석해 보고자 총 186편의 대상 논문을 분류한 결과 135편

(72.5%)의 논문에서 치료기법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2 참조).

먼저 커플치료의 주요 이론을 살펴 본 결과, 총 25개의 치료이론이나 기법이 연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이론은 두 가지 이상을 통합한 통합적 접근으로서 20편의 논문이 이에 해당되었다. 이는 분석대상이 되는 총 135편의 논문 중에서 14.8%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그 다음으로는 사티어의 의사소통적 치료개입을 포함한 경험적 커플치료가 18편으로 13.3%를 차지하였다. 이어서 보웬의 이론을 포함한 다세대 가족치료가 9편(6.7%), 해결중심치료와 가트만 치료를 포함한 정서중심치료가 각각 8편으로 5.9%에 이르렀다. 또한 전통적인 관점의 정신분석과 대상관계이론에 기반을 둔 커플치료 연구와 인지행동 커플치료가 5편으로 3.7%를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국내에서 커플치료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치료이론과 기법은 통합적

<표 2> 커플치료 연구에서의 치료이론과 기법 N=135

정통 커플치료			기타 커플치료			매체치료		
	n	%		n	%		n	%
1. 통합적	20	14.8	11. 이마고, 내면아이	8	5.9	20. 미술치료	13	9.6
2. 경험적(사티어)	18	13.3	12. 교류분석	5	3.7	21. 독서치료	3	2.2
3. 다세대(보웬)	9	6.7	13. 애착이론	4	3.0	22. 놀이치료	3	2.2
4. 해결중심	8	5.9	14. 현실치료	4	3.0	23. 음악치료	2	1.5
5. 정서중심(가트만)	8	5.9	15. 마음챙김 명상	3	2.2	23. 예술치료	1	0.7
6. 정신분석(대상관계)	5	3.7	16. 목회상담	3	2.2	25. 인형치료	1	0.7
7. 인지행동	5	3.7	17. 긍정심리	2	1.5			
8. 구조적	4	3.0	18. 영성치료	1	0.7			
9. 전략적(MRI)	2	1.5	19. 수용전념	1	0.7			
10. 이야기	2	1.5						
합계	81			31			23	

커플치료 접근, 사티어의 경험적 커플치료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보웬의 다세대 치료와 해결중심치료, 가트만치료도 그 다음으로 많이 연구자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치료이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통합적 치료는 체계화 된 통합적 접근보다는 두 가지 이상 또는 어떤 특정한 치료기법을 내세우지 않고 숙달된 커플치료사가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인상담에 기반을 둔 이론도 커플치료에 적용되고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마고, 내면아이치료(8편)가 가장 많이 시도되었고, 교류분석, 애착이론, 현실치료, 마음챙김 명상, 목회상담 등이 3편 이상 시도되었다.

그 외 매체를 활용한 커플치료 연구를 살펴본, 미술치료가 13편(9.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독서치료, 놀이치료 등이 각각 3편 이상 시도되었다.

##### 5. 커플치료 연구에서의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방법의 분석 틀은 서진환(2008)의 연구를 참고로 하였다. 여기서의 분석틀은 가족치료 분야의 연구방법들을 기본적인 토대로 삼고 있으나, 편의적인 구분에 의거하고 있어서 분석기준이 중복되기도 한다. 가장 기본적인 구분은 개입과 비개입 차원에 의거하였으나, 양적·질적 연구의 구분은 개입, 비개입차원에서 중복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발표된 커플치료 관련 논문 총 186편을 연구방법의 차원에서 살펴보았다(표 3 참조).

먼저, 연구방법에 따른 분류는 먼저 커플치

료 관련 논문을 개입연구와 비개입연구로 나누었다. 여기서의 개입연구는 주로 사전-사후 검사 비교를 실시하거나 유사실험설계에 근거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처치 효과를 비교하는 논문들을 가리킨다. 비개입연구는 이러한 연구방법을 쓰지 않은 여타의 연구들이 이에 속한다. 이론적 토대에 근거하여 변인들을 설정하고 그 변인들 간 관계검증, 적도개발을 하거나 현상발견이나 탐색 등에 주력한 연구들이 여기에 속한다. 총 186편 중 개입연구가 116편(62.4%)이고 비개입연구가 70편(37.6%)로 나타나 치료적 연구가 우세하였다.

개입연구는 다시 성과연구, 과정연구, 사례연구로 분류되었다. 성과연구(outcome research)는 치료의 효능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에 따른 효과를 검증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과정연구(process research)는 치료의 효과성은 제시하지만 어떤 요소에서 효과가 발생했는지 설명하기 어려운 성과연구를 보완할 수 있는 연구로서, 변화과정과 치료의 성공 요인들을 분석하고, 어떤 과정이 효과와 관련이 있는지를 밝혀주는 연구이다. 사례연구(case research)는 실제 연구자가 사례를 가지고 치료과정을 전반적으로 설명한 연구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대부분의 사례연구들은 연구대상자의 변화를 이끌었던 요인을 체계적으로 탐색하지 않았다. 한 사례 또는 소수의 사례를 중심으로 커플의 문제와 특성을 살펴보는 연구이며, 이론을 적용하기 위해 사례 연구방식을 취한 것도 포함되었다.

지금까지 학술지에 게재된 커플치료는 사례연구가 69편(37%)으로 가장 많았고, 과정연구는 없었고, 성과연구는 47편(25%)이었다. 대부분의 개입연구가 사례연구에 치우쳐 있음을

<표 3> 커플치료 연구에서의 연구방법

N=186

분류	성격	핵심 분석방법 및 전략	n	%
	성과연구(47) (양적 : 43/ 질적 : 4)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29	15.6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검증	11	5.9
		프로그램 개발	7	3.8
개입 연구 (116)	과정연구(0)	-	-	-
	사례연구(69) (질적 : 69)	가족문제 분석	23	12.4
		심리내적 문제 분석	17	9.1
		정신적 문제 분석	11	5.9
		특수가족 문제 분석	10	5.4
		치료이론 적용	8	4.3
비개입 연구 (70)	경험연구(32) (양적 : 30/ 질적 : 2)	관련변인 간 관계 검증	22	11.8
		현상 발견이나 탐색 및 이론 연결	3	1.6
		실태 / 현황을 경험적으로 파악	3	1.6
		척도개발 및 검증	2	1.1
	문헌연구(38)	이론 / 모델 검증	2	1.1
		관점과 이론에 대한 심층 이해	19	10.2
		모델 / 기법 소개와 설명	12	6.5
		실태 / 현황을 문헌고찰로 파악	4	2.2
		연구동향 분석	3	1.6

알 수 있고 과정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과정연구가 치료 과정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반영해야 하므로, 절차상의 어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갈등과 위기로 찾아온 커플에게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실험대상으로 참여하는 데 있어서 내담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비개입연구는 경험연구와 문헌연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경험연구는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한 연구, 이론과 모델을 검증한 연구, 관련변인 간 관계를 검증한 연구, 척도개발을

한 연구, 현상을 발견하고 탐색한 연구, 이론을 개발한 연구가 이에 해당된다. 문헌연구는 연구주제와 관련해 문헌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는 방법이며, 이론적 고찰에 중심을 두고 하는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커플치료와 관련해서는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모델과 기법을 소개하고 설명한 연구들과 관점과 이론에 대해 이해를 높이려는 연구, 실태와 현상을 문헌을 통해 정리한 연구들이 이에 해당한다. 본 연구 결과, 문헌연구는 38편(20%), 경험연구가 32편(17%)을 차지하였다.

커플치료 관련 논문들을 다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수치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질적, 양적 연구방법을 적용하기 모호한 문헌연구(38편)를 제외하고, 개입, 비개입 연구를 통틀어 성과연구, 사례연구, 경험연구를 시도한 논문들에서 사용한 방법들을 살펴보면, 양적 연구가 73편, 질적 연구가 75편으로 그 수치가 비등하다. 성과연구에서는 양적 연구가 43편, 질적 연구가 4편이 시도되었고, 사례연구는 모두 질적 연구로 진행되었으며, 경험연구는 양적연구가 30편, 질적 연구가 2편을 차지하였다. 커플치료 관련 논문들에서 성과연구는 주로 양적 연구방법을 사용했지만, 사례연구와 경험연구는 모두 압도적으로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격에 따른 분류에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핵심 분석방법과 전략을 살펴보았다. 개입연구에서 성과연구 중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29편(15.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검증 연구가 11편(5.9%), 단독으로 프로그램을 개발만 한 연구 7편(3.8%) 순이었다. 개입연구에서 사례연구를 살펴보면, 이혼, 외도, 폭력 등의 커플간의 관계인 가족문제를 다룬 23편(12.4%)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갈등,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심리내적 문제 분석이 17편(9.1%), 우울과 그 밖에 정신질환을 포함한 정신과적 문제가 11편(5.9%), 다문화가족, 기러기가족 등 특수가족 문제 분석이 10편(5.4%), 치료이론을 적용한 연구 8편(4.3%) 순으로 나타났다.

비개입연구에서 경험연구 중에는 관련변인과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가 22편(11.8%)으로 가장 많았고, 현상을 발견하거나 탐색해서 이론과 연결시킨 연구와 실태나 현황을 경험적

으로 파악한 연구가 각각 3편(각 2.2%), 척도 개발 및 검증, 이론이나 모델 검증 연구가 각각 2편(각 1.6%)으로 그 뒤를 이었다. 비개입연구에서 문헌연구를 살펴보면, 관점과 이론에 대한 심층 이해를 위한 연구가 19편(10.2%)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 다음이 모델과 기법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연구로서 12편(6.5%)이 여기에 해당하였다. 또한 문헌을 통해 실태와 현황을 파악한 연구가 4편(2.2%)을 차지하였으며, 연구동향을 분석한 논문이 3편(1.6%)으로 나타났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내 커플치료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연구 경향을 분석하여 연구자와 임상가들에게 모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시도되었다. 즉, 연구자들에게는 지금까지의 커플치료를 성찰하고 향후의 연구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과 동시에, 커플치료의 현장에 있는 임상가들에게는 적절한 개입모델이나 기법의 모색과 더불어 효과적인 커플치료의 탐색에 도전할 정보를 제공해 보고자 하는 의도로 출발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riss.kr을 통해 ‘커플치료’로 검색된 186편의 투고논문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여 연도, 학문영역, 연구주제, 치료이론 및 기법, 연구방법에 따라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에 따른 결론 및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서 발표된 커플치료 관련 연구들은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물론 발표 편수가 특정 해에 있어 감소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증가해 왔으며, 특히

2000년 들어서는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해 온 경향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1995년 이래로 매년 20% 이상씩 양적 성장을 보여 왔다. 1980년 초에 커플치료 연구가 시작된 것은 국내의 가족관련 학회의 시작과 궤적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서 커플치료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는 배경에는 이러한 가족관련 학회뿐만 아니라 커플치료와 본격적으로 관련되는 「한국가족치료학회」나 「한국상담학회」(「부부가족상담 분과학회」)의 학술지가 성장한 것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시점 상으로는 개인상담에 비해 약 20년 정도 늦은 것이나, 특히 2000년도 이후 커플치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증폭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의 배경에는 한국 사회의 변화에 따른 가족 및 부부관계의 변화, 가족 갈등이나 문제의 심화, 가족해체나 위기를 반영하는 이혼율의 급증 등으로 사회적 차원에서의 관심이나 개입 요청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국내 커플치료 연구와 관련한 학문영역에서 가장 활발히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가족치료분야이다. 본 연구 결과, 가족치료 분야가 28.5%로 가장 많은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외에 심리학, 상담학, 사회복지학과 가족관계학에서도 커플치료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였다. 특히, 학문 분야에 따라서는 특정 주제와 관련해 커플치료 연구가 두드러지게 이루어졌는데, 예컨대 쉼터 거주 배우자의 문제는 사회복지영역에서, 우울증은 심리학 분야에서 주로 연구되었다. 또한 이외에도 약 66개의 학회 및 대학상담센터 내 연구출판부에서도 1~2개의 커플치료 관련 논문을 발표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커플치료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자들이 활동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원래 가족치로나 커플치료는 학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출발하였기 때문에 이는 당연하고도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커플치료 연구를 토대로 그리고 현재의 학문 추세를 반영하여, 몇 개의 학문 분야가 융합하여 커플문제에 접근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 효과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해본다.

셋째, 국내 커플치료 연구에서의 주된 연구주제는 ‘부부의 문제 상황’, ‘의학적 특성’, ‘정신적 요인’, ‘가족주기 요인’, ‘특수 가족문제’ 등 총 5개이다. 주제별로 다시 구체적인 세부항목으로 살펴보면, 부부의 문제 상황은 이혼, 가정폭력, 외도, 고부갈등, 의학적 특성은 장애문제, 암환자, 척추손상, 불임여성, 정신적 요인은 우울, 알코올, 편집, 불안, 망상, 중독, 가족의 주기는 청년기, 신혼기, 중년기, 노년기, 특수 가족문제는 다문화가족, 재미교포가족, 기러기가족, 쉼터거주가족, 맞벌이가족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발표된 커플치료 관련 연구를 연구주제별로 살펴볼 때, 주목할 부분은 ‘의학적 특성’과 관련해서이다. 최근 가족치로나 커플치료에서는 의학적 커플치료(*medical couple therapy*)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으나(Gurman, 2015), 국내의 커플치료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미미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특수가족 문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가족형태에서의 커플문제에 대한 개입을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다. 부부가 아닌 커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대학생 커플 등에 대한 연구들은 있으나, 동성애 커플이나 다른 연령대의 부부가 아닌 커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주장하고 있는 시대적인 흐름은 상당히 열기를 띠고 있으나 커플치료 연구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동성애커플 그 자체에 대한 연구(한빛나, 2015), 동성애 커플에 대한 종교적 접근 연구(류성민, 2015)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동성애 커플에 대한 치료적 접근 연구는 시도되지 않은 상황이다. 동성애 이슈는 전반적인 정치·사회·문화적인 분위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비록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용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이들의 이슈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어서 앞으로 동성애 커플에 대한 연구자와 임상가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넷째, 국내 커플치료 연구에서 가장 많이 다룬 치료이론과 기법은 통합적 커플치료이다. 그 외에는 사티어의 경험적 치료가 커플치료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매체를 사용한 커플치료의 측면에서 보면 미술치료가 가장 두드러진다. 전반적으로 볼 때는 가족치료의 이론적 모델 중 국내에 많이 소개되었거나 연구소 혹은 워크숍이 활성화된 이론적 모델, 즉 경험적, 다세대적, 해결중심적 치료이론에 기반을 둔 것이 더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부 치료를 중심으로 발전된 이론들, 예컨대 거트만치료, 정서중심적 치료, 이마고치료 등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에 개인상담에 기반을 둔 커플치료나 매체를 활용한 커플치료에 대한 연구 등도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커플치료의 이론이나 기법은 상당히 다각화, 다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부나 커플치료의 사회적 수요를 고려할 때 보다 다양하고 참신한 치료이

론이나 기법의 도입 필요성은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치료이론과 관련하여 국내 커플치료 연구를 고찰하는 작업에서 드러나는 사실은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치료이론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고 사례 중심으로 치료과정을 기술하는(describe)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커플치료에서 근간이 되는 정통적인 이론에 근거를 두기보다는 매체나 기법에 의존된 연구가 상당수였으므로, 향후에는 이를 보완하는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국내의 커플치료 연구에서는 개입연구가 비개입연구보다 우세하며, 특히 사례연구가 연구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성과연구, 문헌연구, 경험연구 순으로 나타난다. 개입연구가 비개입연구보다 우세한 상황은 커플치료 연구가 ‘치료적 처치’에 관심을 두고 있으므로 당연한 결과임을 알 수 있으며, 사례연구가 특히 많이 나타나는 것은 임상 상황에서의 경험을 연구 관심사와 연계시키려는 의도의 결과로 추정할 수 있다. 다만 현재의 국내 커플치료의 사례연구는 주로 단일사례에 대한 질적 접근이 주로 이루어져 연구의 엄격한(rigorous)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제기된다고 할 것이다. 성과연구에 있어서도 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성 검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정교한 실험설계에 의한 프로그램의 평가 연구가 아쉬운 형편이다.

연구방법과 관련해 커플치료 연구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사항은 그동안 과정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과정연구는 다른 여타의 방법들에 비하여 절차가 까다롭고 번거로운 난점이 있으나 연구 결과의 임상 현

장에 대한 시사점은 상당히 크고 연구와 실천의 연계를 가장 잘 반영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커플치료에서 가장 권장되어야 할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를 제시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연구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국내 커플치료 연구의 연도별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주요한 연구 성과들을 대부분 수집하였으나, 국내 커플치료 연구를 빠짐없이(exhaustively) 포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연구상의 편의를 위하여 학회지를 한정시켜 작업을 시도하였으나 커플치료 관련 연구를 수록한 다른 학술지들도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단행본이나 학위논문, 혹은 보다 정교한 검색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분석대상 연구들을 포섭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커플치료 연구가 어느 학문 영역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 학문 분야의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를 통해서 접근하였다. 하지만 학제적 성격이 강한 학회의 경우 특정한 학문 분야로 분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방법은 다소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회지별로 보다는 논문 그 자체의 학문적 관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국내 커플치료에서 다루는 연구주제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대상을 통해 주제를 파악하는 방식을 채택하였고,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 단계를 거쳐 정리하였다. 하지만 연구의 주제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거나 주제를 나누기 애매한 영역들이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후 연

구에서는 새로운 통계방법론 등을 도입하여 기존의 분석방식과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보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즉 직관적으로 연구주제를 도출하기보다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질적 분석에서 사용하듯이 연구주제를 추출하거나, 아니면 최근 점차 부각되고 있는 텍스트 마이닝 등을 통해서 의미 네트워크 분석 등을 시도하거나 하는 것이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커플치료 연구의 전반적인 추세를 정리하고 구체적인 연구주제나 치료이론, 연구방법 등을 짚어 줌으로써 커플치료의 현 단계와 위상을 파악하고 향후 커플치료가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는 데 기초적인 정보 제공과 자료 축적의 의의를 지닌다. 다양한 커플관계의 등장에 따라 갈등과 위기 해결에 대한 전문적 개입의 요구가 집중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커플치료의 동향 파악을 통해 연구에서 나온 결과들이 현장 전문가들과 공유되고 확대되고 다시 현장의 목소리가 연구에 반영되는 선순환구조 정립의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경찰청 (2016). 경찰범죄통계. [http:// www. police.go.kr](http://www.police.go.kr)
- 김계원, 정종진, 권희영, 이운주, 김춘경 (2011). 상담심리학의 최근 연구동향: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지 게재논문 분석(2000~2009).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521-542.
- 김남연, 양난미 (2012). 국내 부부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동향: 2000년~2011년

- 발표논문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3(5), 2505-2022.
- 김선남, 송준수 (1986). 가족치료의 최근 연구 동향. *교육학연구*, 24(2), 39-50.
- 김수현 (1982). 부부관계 치료이론의 비교 고찰. *한국임상심리학회지*, 3(1), 233-246.
- \_\_\_\_\_ (1985). 부부갈등과 치료적 개입. *성심생활*, 4, 3-18.
- 김은영 (2007). 해결중심 단기치료의 국내 연구동향 분석: 1988-2006.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5(1), 1-18.
- 김종옥, 정수경 (1994). 고부갈등의 부부치료 사례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1), 41-56.
- 김중술 (1997). 신 사랑의 의미.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류성민 (2015). 동성애·동성결혼에 대한 종교적 이해. *종교문화연구*, 25, 1-44.
- 박우철 (2016). 부부상담 임상연구에서 모델중심 성과연구와 공통요인 연구에 대한 개관. *상담학연구*, 17(2), 327-348.
- 박정희, 최연실, 도은숙, 서신화, 안연주 (2007). 국내외 주요 학술지들에 나타난 가족치료 연구의 주제별 경향: 2000년~2005년 발표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5(1), 47-74.
- 서진환 (2008). <한국가족치료학회지> 연구경향 분석 연구: 창간호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6(2), 1-30.
- \_\_\_\_\_ (2010). 가족치료 연구·실천의 통합을 위한 성과연구 분석: 한국 가족치료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8(2), 1-25.
- 신수빈 (2012). 대학생들의 이별 후 성장에 관한 질적 분석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혜중 (2008). 가족 및 부부상담의 효과성 검증 연구의 현황과 과제. *상담학연구*, 9(1), 277-294.
- 정교영, 신희천 (2007). 부부치료의 주요 이론적 접근과 최근 연구 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1), 1-30.
- 정문자, 정혜정, 이선혜, 전영주 (2018). 가족치료의 이해(3판). 서울: 학지사.
- 최규련 (2015). 부부문제와 부부상담. 서울: 신정.
- 최연실 (2002). 한국가족치료연구에서의 질적 방법론의 활용.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0(1), 101-129.
- \_\_\_\_\_ (2011). 다문화가족의 복지욕구와 복지서비스의 현황 분석 및 통합적 개선방안 탐색: 가족상담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9(3), 61-95.
- 통계청(2017). 통계청\_인구와 가족. <http://kostat.go.kr>
- 한빛나 (2015). 동성애 동거커플의 ‘가족실천’과 의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rown, J. H., & Brown, C. S. (2005). 부부치료: 효과적 임상을 위한 개념과 기술 (김영희, 최규련, 홍숙자 역, 원제: *Marital therapy: Concepts and skills for effective practice*). 서울: 박학사. (원저 2002년 발행).
- Erikson, E. H. (1959). *Identity and life cycl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Gurman, A. S. (2015). The theory and practice of couple therapy. In A. S. Gurman, J. L. Lebow, & D. K. Snyder (Eds.), *Clinical handbook of couple therapy*(5th ed.). (pp. 1-18). New York: Guilford Press.
- Levinson, D. J. (1978). *The seasons of a man's life*. New York: Ballantine Books.
- Long, L. L., & Young, M. E. (2009). 부부상담과 치료 (이정연 역, 원제: *Counseling and therapy for couples* 2nd Ed.).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저 2007년 발행).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W. W. Norton & Co.

- 논문접수일 : 2017년 11월 10일
- 심사시작일 : 2017년 11월 11일
- 게재확정일 : 2018년 06월 04일

## Trends in Couple-Therapy Research in Domestic-Counseling Journals

Bit-Nae Choi

Woo-Jung Choi

Younshil Choi

(Dep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ersity)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research trends by reviewing articles related to couple therapy in Korean counseling journals through 2016. **Methods:** A total of 186 KCI-listed research papers were selected from the scholarly search site riss.kr. The articles were classified and analyzed according to yearly trends, academic areas, research topics, therapy theories and techniques, and research methods. **Results:** First, couple-therapy studies grew quantitatively by more than 20% every year, starting in 1995. Second, couple-therapy research was mainly presented in the academic fields of family therapy, psychology, and counseling. Third, couple-therapy research subjects were divided into married couples' problem situations, medical characteristics, mental factors, family-cycle related factors, and problems in special families. Fourth, the therapeutic theories and techniques used in couple-therapy studies included integrated approaches, Satir's empirical approach, Bowen's multi-generational approach, Imago therapy, and art therapy. Fifth, research methods included both intervention studies (outcome and case studies) and non-intervention studies (empirical research and reference review studies). **Conclusions:** This study presented the current status of couple-therapy research in Korea.

**Keywords:** *couple therapy, research trends, Satir, Bowen, Imago, art therapy*